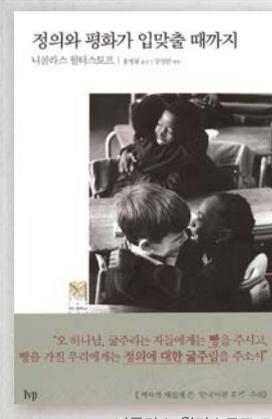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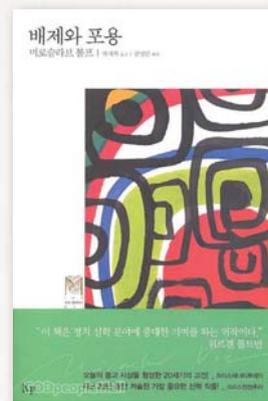
정의를 넘어 삶과 포용으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와 『배제와 포용』을 읽고

◎ 김성민 목사 (SFC출판부 편집장)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저
홍병룡 역 | IVP



미로슬라브 볼프 저 | 박세혁 역 | IVP

I

본 글에서 소개하고자하는 두 권의 책은 원서 제목으로 포용(embrace)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각각 동사와 명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점 때문에 표면적으로 정의와 평화라는 주제를 함께 다룬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두 책은 세부적인 관심 주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는 현실인식을 위한 사회적 구조 분석과 그에 따른 변혁적 실천의 조화에 방점을 둔다. 반면 『배제와 포용』은 상대적으로 사회 구조의 변화보다 그런 변화를 추동해가는 포용의 인격성을 가진 사회적 행위자(agent)를 강조한다. 그러다보니 이런 관심사는 글의 내용과 전개방식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책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주제어인 삶과 포용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말로 보인다.

II

월터스토프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는 정치적인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가난의 문제가 발생하는 세계체제(세계가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는 세계 구조)분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여기에 빈곤에 대한 해방 신학의 적절한 분석을 덧붙인다. 이 두 분석을 신칼뱅주의에 접목시키는 기획이 핵심이다. 신칼뱅주의는 보편 세계의 구조를 보게 하는 장점이 있는 대신 해방신학은 이러한 구조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폭력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월터스타인의 세계체제 이론과 해방신학은 월터스토프가 집필할 당시 세계를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실천 원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다. 세계체제 이론은 경제적·군사적 패권 국가에 의해 세계화 시대

에 필연적으로 불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짐으로써 빈곤의 문제가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친화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중심부 국가들과 주변부 국가들 사이의 종속적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세계체제에서는 발전과 개선의 물리적 혜택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해방 신학은 사회적 억압 구조와 압제자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구원의 신학을 개진했다. 특히 자결권을 가진 '자율성'이나 '자기 성숙'에 도달하려는 의지를 긍정한다. 이 때문에 자유를 위해 압제자들과 불가피한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는 길은 타자의 해방을 위한 규범적 성찰과 실천을 수행하는 길이다. 이처럼 월터스토프는 세계체제 이론과 해방신학이 신칼뱅주의가 구조적 현실 인식을 눈을 뜨게 하고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정의로운 사회는 성경의 평화와 만나야 한다. 월터스토프는 이 만남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한다. 샬롬 안에 정의가 있고 정의가 없으면 샬롬도 없다. 그렇지만 샬롬은 정의 이상이다. 정의가 개혁하고 바로잡는 것이라면 샬롬은 누리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 타자와의 관계를 향유하는 것이다. 이 관계는 나와 다른 자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 모두 포함된다. 샬롬에는 개발과 해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경제적 불균형이 만연해 있고, 다국적 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해 있으며 민족적 과도한 충성이 점점 세밀화 되고 있다. 일정한 이데올로기는 이런 상태를 고착시키려 한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대안적 아이디어들이 제출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이런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원하지 않을 뿐더러 대안적 아이디어를 현실에 실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저항정신이자 저항적 대안 실천이다. 특히 전제적 권력과 폭력에 적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자 종교개혁의 유산이라고 월터스토프는 믿고 있다.

월터스토프가 다른 장에서도 여러 의견을 개진하지만 그에게 샬롬은 억압받고 소외당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편에서 서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구체적인 상황적 실천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샬롬적 실천을 위해 학문은 이론화 작업과 순종적 행동의 상관성을 성찰하고 이론이 행동을 섬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간파했다. 학문 연구도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자의 울부짖음을 듣도록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실천은 자선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 구조적 변혁을 의미한다.

그리고 월터스토프는 빈곤의 문제, 민족의 문제, 도시의 문제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생겨나는 부조리와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인다. 인간과 세계가 만나는 성례전적 예배가 필요하다. 고통의 문제가 빠지고 정의가 상실된 예배는 현실을 왜곡된 방식으로 종교화한다. 따라서 그는 일상생활의 리듬 자체가 예배의식에서 되살아나고 실행되어야 하고, 정의의 실현과 샬롬적 안식을 위한 순종적 다짐이 기념적 의식으로 재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육신적 자기희생의 성만찬이 다시 회복되어야 일상과 예배가 샬롬으로 만난다.

III

볼프가 『배제와 포용』에서 던지는 문제의식을 한 마디로 말하라면 다음 문장에 담겨 있다. “어떻게 압제당하는 이들의 정의에 대한 요구와 십자가에 달린 신분이 가해자에게 베푸신 용서의 선물 모두에 충실할 수 있을까?”(14쪽) 쉽지 않은 질문인 만큼 그의 전개 방식도 여러 개념과 주제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볼프는 이 두 가지 질문의 긴장 관계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 사상들(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과 성경 본문을 대면하고 대화한다. 성경의 내러티브에서 끌어낸 주제인 ‘포용’으로 정의와 평화 문제를 다루는 점이 특이하다.

진리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누가 희생자이며 가해자인지 결정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중요하다. 그런데 볼프는 가해자와 희생자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반목하는 해방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구도는 정의를 이룬다고 복수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른 폭력(또는 불의)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볼프는 궁극적 목적으로서 화해와 사랑의 우선성을 강조한다. 볼프가 볼 때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화해와 포용의 신학이야말로 정의가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이 포용의 신학은 ‘억압받는 이에게 주신 소망’과 ‘그들에게 요구하신 급진적 삶의 변화 사이의 관계’ 모두를 구해 내려는 방법을 제시하는 신학이다. 희생자들도 회개해야 하며 그들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사회변화가 가능하다. 시기와 적대감으로 가득한 옛 질서로는 진리도 정의도 실현할 수 없다. 이러한 옛 세계 질서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포용적 정체성을 지닌 세계)가 피난처를 만들어 내어야 사회 변혁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설파한다.

볼프는 포용이 자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의를 ‘배제’라고 본다. 배제는 자아와 타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사회적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에

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원인이다. 패권 중심의 세상에서는 자아는 타자의 영역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식민 통치하려 한다. 배제하기 위해 타자의 삶에 침투하고 지배하기 위해 배제를 일삼는다. 타자는 이런 배제의 희생양이 되고 폭력과 악행의 피해자가 된다. 타자를 공동의 영역에서 추방하고 일정한 영토를 독점한다.

그렇다면 타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의와 평화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볼프가 정의 대신 포용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포용을 설명하기 위해 ‘포용’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가 제시하는 포용의 이미지는 배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림이다. 온전한 화해는 가해자와 희생자 이분법을 지양하고 가해자조차도 설 자리를 제공한다. 포용하시는 하나님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다. 십자가는 죄인들의 죄를 잇는 것이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 포용은 ‘팔 벌리기-기다리기-팔 모으기-다시 팔 벌리기’ 행위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볼프가 이 책에서 이 포용의 이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이 정의에 대한 그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이렇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폐쇄적인 자아 정체성을 개방하고 타자를 원한다는 신호다. 그래서 자아에 균열을 낸다. 그 틈에 타자가 들어올 공간을 만든다. 이것은 자아가 타자에게 들어갈 욕망을 내포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자아와 타자의 상호성에 기초해 있다. 기다리는 행위는 잠시 멈추는 행위로서 타자의 경계선에서 멈춘다는 것을 뜻한다. 포용을 강요하거나 타자를 억압하는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는 의지적인 기다림이다.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타자가 자아에게 자발적으로 향하게 한다는 면에서 이것도 상호

성에 기초해 있다. 안는 행위는 상호성의 절정을 이룬다. 두 쌍이 팔을 벌리고 안는다. 자아의 행위가 곧 타자의 행위가 되는 순간이다. 여기에서 타자의 불투명성은 거부되고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이 열린다. 그리고 다시 팔을 벌리는 행위에서 타자의 타자성이 이제 진정으로 보존되고 확인된다. 타자의 보존을 위해 자아는 뒤로 물러선다. 그래서 차이가 인정되면서도 서로의 흔적이 자기에 남는다.

볼프가 포용을 포용의 이미지로 사용한 것은 '내어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포용은 자기 내어줌의 결과다. 자기 내어줌은 타자에 대한 인정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 볼프는 자기희생을 통해 평등성과 상호성이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참된 포용의 부드러움은 양쪽 모두를 변화시킨다. 그럼에도 팔을 벌렸을 때 타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 수 없다는 면에서 포용은 위험하기도 하다. 이것은 그만큼 포용의 행위는 내어줌과 그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상호성과 역동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호성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내어주는 자기희생이 함께 가는 정체성을 볼프는 삼위일체에서 찾는다. 삼위일체적 정체성은 '페리코레스시스'라는 '상호 내주'하는 정체성이다. 말하자면 서로를 해체시키고 결국 불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중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자아 안에 타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정체성이다. 이런 복합적인 정체성을 우리의 사회에 적용할 방법에 그는 관심이 있다.

볼프가 삼위일체적 정체성이 포용의 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삼위일체 모델이 배제를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체와 타자의 경계가 사라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누가 무엇에 의해 배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로슬라브 볼프

다. 그러나 배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타자를 기꺼이 포용하고 배제하지 않고 판단하는 기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타자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구별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언어 용법이 요구된다. 삼위일체적 정체성은 이러한 배제를 경계하면서도 구별(차이)을 무시하지 않는 적절한 개념이자 존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삼위일체에는 주고받음이 동시에 일어나고 상호 들어오게 하면서도 동시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관계의 역동성이 있다. 여기엔 추방과 동화나 종속화가 일어나지 않고 폭력이나 내버려둠이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볼프는 폭력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볼프는 십자가의 폭력성과 최종적 심판의 폭력적 배제의 불가피성을 언급한다. 그렇다고 이 폭력이 인간의 폭력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절대적' 폭력이라는 점 때문이다. 십자가는 인류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폭력의 연쇄 고리를 끊는다. 예수의 부활에 의해 새로운 세상의 현실이 가능하게 되었고 진리와 정의를 위한 투쟁도 계속된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폭력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자기를 내어 주는 사랑, 즉 하나님이 진리와 정의를 불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

리는 지식 속에서 타자를 포용하기 위해 폭력을 기꺼이 흡수하려는 태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469쪽) 하지만 십자가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다. 불의와 기만의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폭력을 종식시키시는 하나님의 결연함이 숨어있다. 그래서 볼프는 종말론적 심판을 최종적 화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인식하고 있다. 말하자면 최종적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속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배제하는 이미지이다. 이러한 폭력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인간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폭력도 거부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봐야 한다.



IV

볼프는 사회 구조 변혁을 무시하지 않지만 적어도 『배제와 포용』에서는 화해적 정체성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삼위일체를 닮은 자아가 제거되지 않으면서 타자가 상호 관계하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아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정의로운 세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월터스토프는 사회구성원들이 살림의 사회를 내다보며,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기를 촉구한다. 그는 사회변혁을 구조적으로 이루어 가면서 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돌려주는 일을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 본다. 여기에 월터스토프도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 대해 다르게 보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 타자와의 만남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포용하면서 살림을 이루어가야 한다.

정체성을 강조하던 구조 변혁을 위한 실천을 강조하든, 정의와 평가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는 이 땅에서 완전히 경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정체성(신적 본성에 참여한 자)과 사회적 삶의 실천(성령의 열매)을 모두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정의를 이루기 위한 투쟁이 우리의 정체성과 대치되지 않으면서, 타자와의 만남(포용)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타자와 함께 하는 공간에 살림은 싹을 내고 자라나게 될 것이다.



김성민 목사 고신대와 고신대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서강대학교일반대학원에서 철학, New Saint Andrews College에서 신학과 문학을 공부했으며 현재 SFC출판부에서 편집장으로 있다.